

# 금리 상승에 자금조달 부담 확대 카드사, 채권발행 완급 조절 필요

상반기 카드사 5곳, 연체율 상승 연말~내년 1분기 금리 급락 관측 낮은비용 조달로 연체율 해소 기대 업계 전반 조달창구 다변화 요구



여전체 금리가 시장금리와 함께 오르면서 카드업계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 /뉴시스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카드사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고채 금리와 함께 여전체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연말 채권시장 안정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채권발행 완급조절이 요구된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여신전문채권(AA+/3년물) 금리 상단은 연 4.56%다. 지난 1월 이후 최고점이다. 국고채 금리와 콜금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동시에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스프레드(가산금리)는 0.29%포인트(p)까지 축소하면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동안 카드사의 조달 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카드업계가 채권발행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 예상과 함께 오는 연말과 내년 1분기 사이에 시장금리가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 관측이 나와서다.

카드사 순이익 악화의 주범으로 조달 비용 증가가 꼽히는 만큼 완급 조절을 통한 비용 절감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우선 국내 요인만 놓고 보면 기준금

리를 인상할 동기 부여가 없다. 한국은행은 매년 물가안정목표제 2%에 초점을 맞춰 기준금리 결정 등의 통화정책을 운영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오는 연말 채권시장 안정화가 예상된다”며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금리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선 희소식이다. 연체율과 조달 부담을 함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카드사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금융상품의 금리도 함께 오른다.

그러나 올해 카드사가 3개월 이상 미회수한 채권 비중이 늘어나면서 조달 부담 대비 대출 금리를 높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업계 관측대로 연말께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금리 인하를 통해 연체율을 해소할 수 있다.

올 상반기 현대·우리카드를 제외한 전업카드사 5곳(신한·삼성·KB국민·롯데·하나)의 연체율이 일괄 상승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하나카드다. 1년 사이 0.50%p 올랐다. 이어 같은 기간 ▲신한카드(0.39%p ↑) ▲KB국민카드(0.24%p ↑) ▲롯데카드(0.21%p ↑) ▲삼성카드(0.20%p ↑) 등이 뒤를 이었다.

미(美)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조정 여부가 분수령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 또한 세수 부족을 겪으면서 국제 발행량을 확대하고 있다. 선불리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카드업계에 조달창구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시장은 변수에 예민하게 움직이는 만큼 카드사가 유동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 채권발행을 가파르게 줄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채권시장 안정화는 금융권 전반에 희소식이지만 전망만 믿고 안심할 수는 없다”면서 “카드업계 전반에 걸쳐 조달 창구 다변화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우리금융F&I, 800억 회사채 발행 성공

발행금액의 5배 초과 모집액 달성 수익성 고려 회사채 발행 증액 검토

우리금융에프앤아이 80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 발행에 성공했다.

지난 11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시장의 뜨거운 관심으로 총 4150억원의 유효수요가 몰려 발행금액 5배를 초과하는 모집액을 달성했다.

이번 발행은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설립 후 첫 공모 회사채 발행으로 채권 등급 'A-'를 고려했을 때 흥행을 거둔 셈이다.

발행금리는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금리)' 기준 18개월물은 14bp(1bp=0.01%포인트), 24개월물은 25bp이며, 발행 예정일은 오는 18

일이다.

또한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NPL(Non Performing Loan·부실채권) 투자 확대와 미래 수익성을 고려해 최대 1500억원까지 회사채 발행 증액을 검토 중이다. NPL 투자는 저평가된 부실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후 높은 가격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 관계자는 12일 “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모집물량을 초과한 주문을 받은 것은 당사의 사업경쟁력, NPL 투자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우리금융그룹 지원 등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비씨카드 본사에서 최원석 대표이사 사장(왼쪽 다섯번째)과 최종 입상 7개팀이 시상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비씨카드

## 신한페이 포인트 매달 50회 추가 적립

### 카드 News

비씨카드,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 전국 대학생 7개팀 최종 선정

삼성카드, 추석맞이 쇼핑 행사 트레이더스 최대 50%할인 혜택

신한카드가 자사 페이 활성화를 위해 포인트 적립 혜택을 강화했다.

◆ 건당 최대 1000 포인트 추가 적립 혜택

신한카드는 신한페이 결제 시 마 이신한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플레이팡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플레이팡팡은 신한페이를 사용해 ▲터치결제 ▲바코드 ▲큐알(QR) ▲근거리 무선 통신(NFC) 등의 방식으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1000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포인트는 매달 50회까지 추가 적립한다. 결제 후 3일 이내 '타임라인' 메뉴에서 동전 아이콘을 터치하면 받을 수 있다. 이어 이번달 세븐 일레븐의 '세븐카페'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신한페이로 결제하면 50% 할인한다.

비씨카드의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일정이 모두 끝났다.

◆ 총 상금 980만원... 최종 입상 7팀 선정

비씨카드는 지난 7월 개최한 '렛츠비씨(Let's Be Creative)'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시상식에는 최원석 비씨카드 사장을 비롯해 최종 입상한 7팀 및 임

직원이 참석했다. 대상은 MZ세대 특화 상품투자 플랫폼 관련 아이디어를 기획한 서현주(고려대 미디어학부 4학년), 최윤아(고려대 경영학과 4학년) 학생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대학생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했다.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대학생 159명으로 구성된 75팀이 참가했다.

이상준 비씨카드 상무는 “이번 공모전은 청년세대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지속 가능한 비씨카드 사이의 교집합을 발굴하면서도 참가 대학생이 실무 경험과 사업 기획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축제였다”고 말했다.

삼성카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맞춤 행사를 기획했다.

◆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에서 쇼핑하면 상품권

삼성카드는 명절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 추석맞이 쇼핑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마트에서 행사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최대 40% 할인 혜택 또는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어 트레이더스는 최대 50%의 할인 혜택과 최대 5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최대 40% 할인 및 최대 250만원의 상품권을 선물한다.

GS25에서는 매일 오전·오후 6~9시까지 타임세일 행사상품을 구매하면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씨유(CU)에서는 행사상품 구매 고객에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정산 기자

# 신용카드 대출·리볼빙 금리비교 쉬워진다

금감원·여신협, 비교공시 강화 금리 한눈에 보기 등 편의성 제고 업계 자율적인 금리경쟁 유도

〈개선된 금리 상세보기〉

구분	가격	900점 초과	801~900점	(중략)	401~500점	301~400점	300점 이하	평균	700점 이하 회원 평균
□□ 카드	기준가격	13.77	16.56		19.36	19.35	19.11	18.32	18.93
	조정금리	△0.18	△0.16	(중략)	△0.12	△0.10	-	△0.22	△0.10
	운영가격	13.59	16.40		19.24	19.25	19.11	18.10	18.83
	조달금리				4.38			4.38	4.38
△△ 카드	기준가격	15.40	16.49		19.41	19.51	18.75	18.49	19.09
	조정금리	△0.16	△0.18	(중략)	△0.10	△0.10	-	△0.10	△0.10
	운영가격	15.24	16.31		19.31	19.41	18.75	18.39	18.99
	조달금리				4.52			4.52	4.52

한다.

◆ 유용한 금리 정보 추가 제공

현행 금리 세부내역 공시 기준인 '표준등급'은 카드사별로 공시목적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등급을 알 수 없으므로 공시 기준을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또한 '금리 상세보기' 공시에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조달금리) 항목을 추가한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 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를 신설한다.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도 추가로 공시한다.

◆ 공시정보 적시성·비교가능성 개선 소비자 최선 현금서비스 금리정보

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주기를 '분기'→'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현금서비스·리볼빙의 금리 공시일을 '매월말'→'20일'로 변경한다.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도 공시한다.

여신협회는 오는 20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로 공시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돼 합리적인 상품 선택 및 카드사별 금리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공시항목의 적합성 등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